

[국어]

해설 위원: 기미진 교수

본 문서 내용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월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총 평>

연도\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8년	9(↑2)	6(↑1)	3	2(↓3)
2017년	7	5	3	5

2018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은 지난 8월에 있었던 국가직 7급 시험과 유사한 출제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국가직 7급 시험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올해 대체를 보였던 비문학/독해 문제가 작년에 비해 1문제 증가하였고 반면에 2016-17년에 강세를 보였던 어휘/한자 문항수가 크게 줄어 지난 국가직/지방직 9급 시험 때와 동일하게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7문제에 머물렀던 문법/규범이 2문제가 늘어나 9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지방직 시험에서도 문법/규범과 비문학/독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수험 초기부터 문법/규범 이론 공부와 더불어 비문학/독해 훈련이 병행되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유형으로는 문법/규범의 경우 항상 출제되는 ‘띄어쓰기’와 지난 국가직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반의어’, ‘음운 현상’ 등 기존의 출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기출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성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아침특강을 통해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문학/독해의 경우 글의 전개 순서와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등 기존의 유형에서 출제되었으나 문항수가 증가하고 지방직 7급의 경향대로 지문 길이가 길어서 시험 시간 조절 여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형태론, 의미론, 한글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중심내용 찾기, 서술방식 등)으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특히 문학의 경우 각 문제에 인용된 작품에 대한 내용을 교재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계속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듯이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14.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tCC6g

문 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부모와 자식간에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 ② 김 양의 할머니는 안동 권씨라고 합니다.
- ③ 내일이 이 충무공 탄신 500돌이라고 합니다.
- ④ 이번 여름에는 카리브 해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이에 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간’은 사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부모∨자식∨간에도’와 같이 써야 합니다.
- ② [O] 호칭어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양’은 띄어 써야 합니다. 따라서 ‘김∨양’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성씨 자체’, ‘그 성씨의 가문이나 문중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씨’는 ‘권씨’와 같이 붙여 써야 하므로 ‘김∨양의∨할머니는∨안동∨권씨라고∨합니다.’는 바른 표기입니다.
- ③ [X]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고, 호와 자 등이 성명 앞에 오는 경우는 띄어 씁니다. ‘충무공(忠武公)’은 나라에 무공을 세워 죽은 후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과 시호는 붙여 써야 하므로 ‘이 충무공’은 ‘이충무공’과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 ④ [X] ‘카리브 해’는 ‘카리브해’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이는 2017.06.01. 「외래어 표기법」 개정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고유어나 한자어에 붙을 때에는 붙여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 섬, 강, 산, 산맥, 고원, 인, 족, 어……’ 등의 앞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앞말에 붙여 쓰게 되었습니다.

[참 고]

기미진 기특한 국어 기출 문제집 1권 p.250 3번, p.257 19번, p.272 56번

기미진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165 25번

기미진 아침특강(9월) 10회 띄어쓰기 자료 9번

문 2.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밥이 차져서 내 입맛에 맞았다.
- ② 아기가 이쁘디이쁜 미소를 짓고 있다.
- ③ 그녀가 내 소맷깃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 ④ 동생은 안경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경 도수를 더 دون였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한글 맞춤법」 제28항에 따르면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습니다. 합성어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발음되지 않는 형태로 적으므로 ‘차지다(찰지다)’는 맞습니다. 참고로 ‘찰지다’는 2015년 표준어로 인정되어 ‘차지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입니다.
- ② [O] ‘이쁘디이쁘다’는 ‘예쁘디예쁘다’와 같은 말로서 붙여 씁니다. 첩어 또는 준첩어는 한 덩어리가 되게 붙여 씁니다. (예: 매일매일, 요리조리, 머나먼)
- ③ [X] ‘소맷깃’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소맷부리의 구석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는 ‘소맷귀’입니다. ‘소매(윗옷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꿰는 부분)’와 ‘깃(양복 윗옷에서 목둘레에 길게 덧 붙여 있는 부분)’을 함께 쓰는 것은 의미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O] ‘دون다’는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라는 의미로 올바르게 쓰였습니다. ‘دون다’는 ‘위로 끌어 올려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맛맛이 당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고]

기미진 기특한 국어 1권 p.295

기미진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125 6번, p.147 15번

박지원,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연대: 조선 영조때

갈래: 중수필, 기행문

성격: 비유적, 교훈적, 사색적, 분석적, 묘사적

문체: 남성적인 기상을 발휘

짜임: '기승전결'의 4단 구성

표현: ① 치밀한 관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색적이고 관조적
② 체험의 적절한 예시 및 반론으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함
③ 추상적·개념적인 서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이끌어 낸, 설득력이 있는 글

제재: 물소리

주제: 외물(外物)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

이목(耳目)에 구애됨이 없는 초연한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의 중요성

문 9. 다음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 75. 북측 초소(밤)

성식: (우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위커 끈을 풀어서 다시 매 주며) 암마, 군인이 한 번 가르쳐 주면 제대로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매 줄 순 (쓸쓸해지며) 없잖아. (위커 끈을 매 주는 안타까운 표정. 일어서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참! (봉투에 찢 물건을 꺼내 들고 한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짚으며 짐짓 느끼한 톤으로) 생일 축하해. 진.

또 한번 우엑! 하는 수혁. 너무 그러지 말라는 듯 옆에서 툭 치는 경필. 포장을 끄른 우진. 일제 수채화 물감 한 통과 붓 몇 자루를 내려다본다.

... (중략) ...

우진: (진정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도, 형들 줄려구 준비한 게 있어요.

수혁: 뭔데?

말없이 성식이 앉았던 자리로 와 앉는 우진. 모두들 궁금해하며 주목한다. 잠시 침묵. 주머니를 뒤지며 시간을 끄는 우진. 찾는 물건이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한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큰 소리로 방귀를 끼는 우진. 일동, 좌절하며 고개를 푹 숙인다. 깔깔대는 우진, 일어서서 테이블로 간다.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 뭔가를 찾는 우진. 경필, 무표정한 얼굴에서 갑자기 오만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린다.

경필: (코를 막으며) 야아, 문 열어!

초소 문을 열러 가는 성식, 손을 내미는 순간 먼저 문이 열린다. 무심코 돌아본 경필, 굳어 버린다.

— 박찬욱 외, 「공동경비구역 JSA」 —

- ① 성식은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하다.
- ② 우진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든다.
- ③ 수혁은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한다.
- ④ 경필은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나리오, 희곡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성식이 우진의 위커 끈을 매 주고 생일 선물을 준비한 모습을 볼 때 인간적이고 성품이 따뜻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우진이가 형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게 있다고 한 후 큰 소리로 방귀를 끼는 모습에서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해학적인 상황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O] 우진이가 형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게 있다고 하자 수혁이는 '뭔데?'라고 묻고 있으므로

우진의 선물을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X]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경필이 참을성이 강하고 포용력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진의 방귀 냄새에 가장 먼저 반응하며 '야아, 문 열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을성이 강한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록 플러스] 작품 분석

박찬욱 외, <공동경비구역 JSA>

갈래: 시나리오

성격: 민족적, 휴머니즘적

배경: 1990년대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제재: 공동 경비 구역 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주제: 화해와 협력을 갈망하는 시도조차 비극적인 결말로 귀결되는 분단 체제의 모순, 분단을 뛰어넘는 남북 병사 사이의 우정

특징: 분단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 줌.

출전: 원작 - DMZ / 각색-김현석, 정성산, 이무영, 박찬욱

문 10. 다음 글에서 토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여러 분야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국장: 교통 체증 문제는 승용차 10부제 실시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윤 사장: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아주 불만스러운 제도입니다. 제정이 좋은 사업자는 변호관이 다른 차를 하나 더 구입하면 되겠지만, 영세한 사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박 위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어떨까요? 이 제도가 잘 활용되면 승용차 이용자도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것입니다.

김 국장: 승용차 10부제가 실시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윤 사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의 침해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자: 서로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 10부제에서 상업용은 제외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윤 사장: 상업용 승용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업용이지요.

김 국장: 어려움을 같이 감수해야 합니다. 모두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떤 해결방안도 찾기 어렵습니다.

박 위원: 두 분 말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 귀성길에 시행했던 고속버스 전용 차로제의 효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회자: 버스 전용 차로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군요. 이번 토의는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데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미진한 안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사회자: 참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② 김 국장: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 ③ 월드컵에서 보여 준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④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기반 이외에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장 성분의 올바른 호응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이 문장은 '대화명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않는 사람은 관리자가 (그 사람의) 카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비록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이 생략되었지만 문맥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X] 부사 '아마는 뒤에 오는 추측의 표현과 호응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마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을 걸.'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문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를 의미하는 부사 '과연'을 써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마음속으로라도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부사 '과연'은 '그 실력으로 과연 취직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과연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이 쓰입니다.
- ③ [X] 목적어 '국가 경쟁력'은 서술어 '제고해야 한다'와 호응하지만 '국민 대통합'은 서술어 '제고해야 한다'와 호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는 '~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와 같이 고쳐 써야 자연스럽습니다.
- ④ [X] 주어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과 서술어 '필요하다는 것이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자질의 연마, 인격, 원만한 인간관계 등이 필요하다'와 같이 고쳐 써야 자연스럽습니다.

문 15. 사동 표현이 없는 것은?

- ① 목동이 양들에게 풀부터 뜯겼다.
- ② 아이들은 종이비행기만 하늘로 날렸다.
- ③ 태희는 반지마저 유진에게 보여 주었다.
- ④ 소영의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가 들려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뜯기다'는 '초식 동물이 땅에 난 풀 따위를 떼어서 먹다.'라는 뜻의 동사 '뜯다'의 사동사로 쓰였습니다.
- ② [O] '날리다'는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다.'라는 뜻의 동사 '날다'의 사동사로 쓰였습니다.
- ③ [O] '보이다'는 '보다'의 사동사로 쓰였습니다.
- ④ [X] 이 문장에서 '들리다'는 '들다'의 피동사로 쓰였습니다. '들다'의 사동사로서 '들리다'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렸더니 아주 좋아한다' 또는 '부부 싸움을 한 친구에게 꽃을 들려 집에 보냈다'와 같이 씁니다.

[참 고]

기미진 기특한 국어 1권 p.103

문 16.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군산이 일본으로 쌀을 이출하는 전형적인 식민 도시였다면, 금강과 만경강 하구 사이에서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옥구는 그 쌀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식민 농촌이었다. 1903년 미야자키 농장을 시작으로 1910년 강점 이전에 이미 10개의 일본인 농장이 세워졌으며, 1930년 무렵에는 15 ~ 16개로 늘어났다. 1908년 한국인 지주들도 조선 최초의 수리조합인 옥구서부 수리조합을 세우긴 했지만 일본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1930년 무렵 일본인은 전라북도 경지의 대략 1/4을 차지하였으며, 평야 지역인 옥구는 절반 이상이 일본인 땅이었다. 쌀을 군산으로 보내기 편한 철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비중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리부터 군산에 이르는 철도 연선의 만경강 쪽 평야는 90%가 일본인이 경영한다.'는 말이 허풍만은 아닐 거다. 일본인이 좋은 땅 다 차지하고 조선인은 '산비탈 흙구덩이'에 몰려 사는 처지라는 푸념 또한 과언이 아닐 거다.

- ① 인과적 연결을 통해 대상을 논증하고 있다.
- ② 반어적 수사를 동원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를 중심으로 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본인의 조선 침탈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과적 연결을 통해 대상을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 ② [X] 반어적 수사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어법'이란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 ③ [X] 풍자와 해학을 동원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자'는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씬을 의미하고, '해학'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 ④ [O]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연도 및 농장 개수 등)를 중심으로 대상(식민지 하의 군산과 옥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 형식의 열정을 찾을 수 있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근대적 연애에서 자기 의사를 중시하는 대등한 개인의 만남과 둘 사이에 타오르는 감정의 비중이 부각된다. 특히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가족 사이의 약속,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 같은 외적 기준이 중시되었던 것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 옳다, 그렇다. 나는 영채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또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설혹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건져 낼 책임이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한이 되고 죄송하거늘, 이제 그가 나를 찾아왔으니 어찌 모르는 체하고 있으리요. 나는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여서 사랑하리라. 처음에 생각하던 대로, 만일 될 수만 있으면 나의 아내를 삼으리라. 설혹 그가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양반의 집 혈속이요, 또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많이 받았으니 반드시 여자의 아름다운 점을 구비하였으리라. 또 만일 기생이라 하면 인정과 세상도 많이 알았을지요, 시와 노래도 잘할지니, 글로 일생을 보내려는 나에게는 가장 적합하다 하고 형식은 가만히 눈을 떴다. 멍하니 모기장을 바라보고 모기장 밖에서 앵앵하는 모기의 소리를 듣다가 다시 눈을 감으며 싱긋 혼자 웃었다. 아까 영채의 태도는 과연 아름다웠다. 눈썹을 짓고, 향수 내 나는 것이 좀 불쾌하기는 하였으나 그 살빛과 눈썹과 앳은 태도가 참 아름다웠다. 더구나 그 이야기할 때에 하얀 이빨이 반짝반짝하는 것과 탄식할 때에 잠깐 몸을 틀며 보일 듯 말 듯 양미간을 찌그리는 것이 못 견디리만큼 어여뻔다. 아까 형식은 너무 감격하여 미처 영채의 얼굴과 태도를 자세히 비평할 여유가 없었거니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영채의 일언일동과 웃고름 맨 모양까지도 어여뻔 보인다. 형식은 눈을 감고 한번 더 영채의 모양을 그리면서 싱긋 웃었다. 도리어 저 김장로의 딸 선형이도 그 얹전한 태도에 이르러서는 영채에게 맞지 못한다 하였다. 선형의 얼굴과 태도도 얹전치 아니함이 아니지마는 영채에 비기면 변화가 적고 생기가 적다 하였다.

— 이광수, 「무정」 —

- ① 영채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②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형식의 영채에 대한 감정은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다.
- ③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시와 노래에 능한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형식의 생각은 열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
- ④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에서 영채에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가)에서는 근대적 연애가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와 구별되는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광수의 <무정>으로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로,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경향이 잘 나타난 초기 작품입니다. 제시문은 형식이 여러 이유를 들어 영채를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① [I] 영채가 형식에게 원하는 것이 형식의 보호라면, 이는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중시되었던 외적 기준인 상대방에 대한 의존 가능성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② [II] 은사가 아내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는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중시되었던 외적 기준인 가족 사이의 약속에 해당하므로 형식의 영채에 대한 감정은 근대적 사랑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③ [X] 형식이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영채의 장점을 호평하는 것은 전통 사회의 남녀 관계에서 중시되었던 외적 기준인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비교에 해당하므로 (가)의 근대적 연애에서 중시되는 '열정'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 ④ [O] 영채의 외모와 행동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장면은 (가)의 근대적 연애에서 중시되는 '상대방의 모습이 불러일으키는 열정'에 해당합니다.

[기특 플러스] 작품 분석

이광수, <무정>

갈래: 장편 소설, 계몽소설

배경: 시간 - 개화기~일제 강점 이후

공간: 서울, 평양, 삼랑진 등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

문체: 구어체(언문일치)

의의: 소설 문체의 한 전범(典範) 확립. 자유 연애 사상, 계몽 의식의 표면화.

성격: 계몽적, 민족주의적, 설교적

주제: ① 신문명을 받아 들이고 배워 조국의 발전을 꾀하자

② 근대적 시민 사회의 탄생을 겨냥한 민족적 자각과 혁신

특징: ① 당시 시대적친위성이 나타난다.(계몽주의적)

② 구도덕적인 여인의 정절과 기독교적 순결성이 미묘하게 잘 얹혀 있다.

③ 구조가 교사와 학생 관계로 나타난다.(형식-선형, 형식-하숙집 노파, 율화-영채, 병옥 - 영채 사이가 사제 관계와 같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산화탄소와 온실효과가 처음부터 자연에 해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온실효과는 지구의 환경을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해 주었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평균 3, 4도 정도 낮아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 ~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 프레온은 전자 제품을 생산할 때 세척제 혹은 냉장고의 냉매로 쓰인다. 아산화질소와 메탄은 공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생긴다.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①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기체는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 ②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된다.

- ③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 ④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처럼 온실효과를 나타내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체들이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X]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어 ~'라고 하였으므로 자연적인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 표면에서 복사된 열이 모두 외계로 방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50 ~ 200년이나 체류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난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이산화탄소 외에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는 프레온, 아산화질소, 메탄, 수증기 등이 있다. ~ 수증기도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양은 자연 생태계가 조절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문 19. 다음 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이래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長空)에 떠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사양(斜陽)과 섞여 지어 세우(細雨)조차 뿌리는가.
... (중략) ...
초목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매물켜늘
조물(造物)이 현사하여 빙설(氷雪)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별렸구나.
건곤(乾坤)도 가암열사* 간 데마다 경이로다.

— 송준, 「면앙정가」 —

* 가암열사: 풍성하다는 뜻.

- ①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 ② 이 술 가져다가 사해(四海)에 고루 나누어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만든 후에 그제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겠고야.
- ③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 ④ 종조추창(終朝惆悵)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없어 들리나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가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면앙정가〉는 조선 중종 때 송준이 지은 가사(歌辭)입니다. 작자가 만년에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에 면앙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하면서 주위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심정을 읊었으며, 《면앙집》에 한역가가 전합니다.

[현대어 풀이]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랭이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며 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섞이어 보슬비마져 뿌리는구나.

... (중략) ...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아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 내니,

경궁요대(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樓臺)라는 뜻으로, 호화로운 궁전을 이르는 말)와 옥해은산(옥 같은 바다와 은 같은 산)과 같은 눈에 덮힌 아름다운 대자연이 눈 아래 펼쳐 있구나.

자연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 ① [O]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면앙정가〉의 시적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춘곡〉의 시적 화자 역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다며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도다.

- ② [X] 정철의 〈관동별곡〉입니다. 선지는 〈관동별곡〉 중에서 신선과 나누어 마신 술을 백성들과 나누고 싶다는 위정자로서 선정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므로 〈면앙정가〉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

이 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 다시 만나 또 한 잔을 하자꾸나.

- ③ [X] 정철의 〈속미인곡〉입니다. 선지는 〈속미인곡〉 중에서 화자가 밤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므로 〈면앙정가〉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벽 가운데 걸려있는 등불은 누구를 위해 밝게 켜져 있냐.

- ④ [X] 박인로의 〈누항사〉입니다. 선지는 〈누항사〉 중에서 본사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시적 화자가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춘경을 포기하는 부분이므로 〈면앙정가〉의 시적 화자의 정서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현대어 풀이]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참 고]

기미진 기특한 국어 기출 변형 문제집 p.343 14번, p.345 18번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트 중에서도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2인용 덩기(dinghy)는 단연 요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덩기는 엔진이 없기에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 나아가는 요트다. 그러므로 배 다루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그 바람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배는 바람을 받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요트는 맞바람이 불어도 거뜰히 전진할 수 있다. 도대체 요트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해답은 삼각형 모양의 지브세일(jib sail)에 숨어 있다. 바람에 평행하게 맞춘 돛이 수직 방향으로 부풀어 오르면 앞뒤로 공기의 압력이 달라진다.

요트의 추진력은 돛이 바람을 받을 때 생기는 풍압과 양력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요트의 추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는 풍하범주(風下帆舟)와, 양력이 주(主)가 되는 풍상범주(風上帆舟)를 구분하여야 한다.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따라서 압력이 높은 풍상 측에서 압력이 낮은 풍하 측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 이 총합력의 힘은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하여 요트를 앞으로 추진시키는 전진력과 옆으로 밀리게 하는 횡류력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면 유체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아진다. 비행기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돛의 주위에 공기가 흐를 때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의 공기 속도는 느려지고 풍하 측의 공기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 의하여 풍하 측으로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총합력이 된다. 이 총합력은 풍하범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진력과 횡류력으로 분해된다. 횡류력은 요트를 옆 방향으로 미는 힘으로서 센터보드 등의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상쇄된다.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순풍에 해당하는 부분인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와 역풍에 해당하는 부분인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 따라서 요트는 전진력에 의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를 통해 덩기가 순풍이 불 때나 역풍이 불 때나 모두 전진력에 의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센터보드나 킬(keel)과 같은 횡류방지장치에 의하여 횡류를 방지하면서 전진력을 이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③ [O]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와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를 통해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며,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요트가 바람을 뒤쪽에서 받아 주행하는 풍하범주의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압력이 돛을 경계로 하여 풍상 측에서 높고 풍하 측에서 낮게 된다. ~ 이 힘을 총합력이라고 한다'에서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에 의존함을 알 수 있고, '요트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풍상범주의 경우는 비행기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여 비행기가 뜨게 되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요트가 추진하게 된다'를 통해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덩기는 순풍이 불 때는 횡류력으로, 역풍이 불 때는 전진력으로 나아간다.
- ② 센터보드나 킬로 인해 요트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③ 풍하범주는 풍압이 추진력의 주(主)가 되며, 풍상범주는 양력이 추진력의 주가 된다.
- ④ 요트가 바람을 등지고 갈 때는 풍압에 의존하고, 맞바람을 받고 갈 때는 양력에 의존하게 된다.